

경주에 한국원자력연구원 문무대왕과학연구소 착공

김부겸 국무총리, 문무대왕과학연구소 착공식 참석

2025년까지 완공 이후, 미래 혁신원자력 시스템 연구·실증 본격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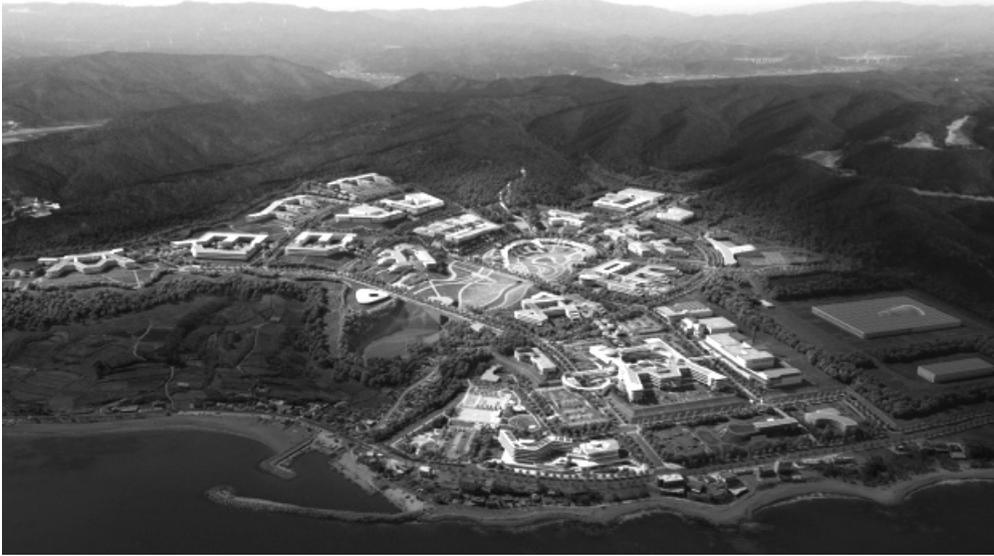
[그림 1] 문무대왕과학연구소 조감도 - 마스터플랜

과 학기술정보통신부와 한국원자력연구원(이하 원자력연)은 7월 21일(수) 오후, 경주 「한국원자력연구원 문무대왕과학연구소」 착공식을 개최하였다. 이날 착공식에는 김부겸 국무총리가 참석한 가운데 용홍택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하 과기정통부) 제1차관, 이철우 경북도지사, 주낙영 경주시장, 김석기 국회의원, 김영식 국회의원, 박원석 한국원자력원장 등이 참석하였다.

기획 단계에서 ‘(가칭)혁신원자력연구단지’로 출발한 연구소는 지난 5월, 지역주민 공모전을 거쳐 공식명칭을 ‘문무대왕과학연구소’로 확정하였다. 이는 연구단지 인근에 수층층이 위치한 문무대왕의 정신을 원자력 기술개발의 원동력으로 삼자는 취지에서 결정되었다.

문무대왕과학연구소는 ▲ D.N.A(Data·Network·AI) 등 첨단기술을 접목한 원전 안전 혁신기술 ▲ 방폐물 안전관리 및 원전 해체기술 ▲ 소형모듈원자로(SMR) 등 미래 혁신원자력 시스템 핵심기술의 연구·실증·산업화 R&D를 위해 구축되는 대규모 연구시설이다.

이번 사업은 2019년 7월 경상북도와 경주시, 원자력연의 업무협약을 통해 첫발을 내디뎠으며, 같은 해 11월 원자력진흥위원회에서 정부 정책으로 확정하였다.



[그림 2] 문무대왕과학연구소 조감도

이후 지난해 2월부터 예비타당성조사에 착수하여 올해 6월 30일 통과되었으며, 이로써 올해부터 2025년까지 5년간 총 3,263억 원(국비 2,453, 지방비 810) 투입이 확정되어 7월 21일 착공식에 이르렀다.

과기정통부와 원자력연은 2025년까지 총 연면적 45,508m² 규모로 첨단 연구·행정 시설, 방사성폐기물 정밀분석시설, 교육·협력 시설 등 총 16개의 연구기반·지원시설과 지역연계시설을 구축할 계획이다.

또한, 과기정통부는 원전 안전·해체, 미래 혁신원자력 시스템 등과 관련한 추가적인 연구·실증 시설 확충 등을 통해 문무대왕과학연구소가 원자력 핵심 인프라로 자리매김하도록 기능을 강화해 나갈 예정이다.

김부겸 총리는 격려사를 통해 “우리나라는 원전 밀집도가 세계적으로 높은 특수한 상황을 고려한 에너지전환정책을 추진”하고 있으며 “원전 안전·해체 및 소형모듈원자로(SMR) 등 미래지향적 원자력 연구개발은 지속적으로 확대 지원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세계 최고 수준의 우리의 원자력 기술력은 포기할 수 없는 소중한 자산이고 문무대왕과학연구소가 원자력 기술 첨단화에 큰 역할을 할 것”이라며 “경상북도 및 경주시와 주민들께서도 함께 힘을 모아 줄 것”을 당부하였다. **KNIF**